

지역 소식통

정읍시 '단품미인쇼핑몰' 내달 이벤트 상품관 운영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직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단품미인쇼핑몰'이 5월 가정의 달 맞이 이벤트 상품관을 운영한다.

이달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10~50%까지 할인하는 이벤트 상품관을 운영하고, 최대 50%까지 가격 할인하는 '블랙데이'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 속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유행을 넘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가정의 달 이벤트가 쇼핑몰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반값으로 바이러스 차단에 협조하는 이들에 감사의 마음을 쇼핑몰 소비를 통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정의 달 이벤트로 보다 할인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코로나 차단 행정력 집중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역현안과 관련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모든 정책은 시기성과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부서는 각종 현안 발생 시 부서간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빨리 시작하는 2020년 2분기에는 한 발 앞서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며 "감염위험이 높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세계지질공원 도전 잔걸음

### 고창군, 전지역 지질조사 착수... 유네스코 인증 준비 지질·생태·문화 복합관광단지로 경제활성화 기대

고창군이 2022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준비를 위해 전 지역 지질조사에 나선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유기상 군수와 한국지질자원연구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용역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륙도 등 지질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용역은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팀(지구환경과학과)에서 7개월 동안 진행한다. 고창군의 새로운 지질명소를 발굴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증(2022년)과 국가지질공원 재인증(2021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2017년 9월 부안군과 함께 고창군 지질명소 6곳(운곡습지 및 고인돌, 선운산, 소요산, 고창갯벌, 명사십리 및 구시포, 병바위) 등 총 12곳을 포함하여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이 환경부로부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국

내 후보지로 선정돼 2022년 최종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군은 그간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랍사르 습지 지정 등으로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은 지난 2017년 고창군 지질명소 고인돌, 선운산, 소요산, 고창갯벌, 명사십리 등 총 12곳을 포함하여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



유진섭 시장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지역 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

## 유진섭 정읍시장 '현장으로'

### 주요 사업장 방문, 추진상황 점검·현장 목소리 적극 청취

유진섭 시장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지역 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

이번 사업 현장 방문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현장 근무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유 시장은 첫째 날 인공공원을 활용한 수경재배 케이팝 팩토리 방문을 시작으로 ▲입암 대흥권역 종합개발사업 ▲아양산 유아숲체험원 ▲공공실버주택 건립 ▲효나눔복지센터 건립 ▲치매안심센터 ▲월영습지와 솔티숲 생태관광지 조성 ▲구절초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 ▲C·R하다리 교량 가설공사 총 9개 사업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각 사업장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현장 관련 시설을 꼼꼼하게 살폈다.

또, 사업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들과 격의 없는 토론과 의견을 나누고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한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시했다.

유 시장은 "사업장 하나하나가 지역의 자원으로써 매력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이용자 맞춤형·창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해당 사업장별 공정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속히 시민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짓고 놀고 먹고 쉬는 관광' 고창서 펼쳐진다

### 고창군·상하농원, 올 산업관광육성 공모 선정 '관심 집중'

좋은 먹거리를 짓고, 동물과 함께 뛰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연 속에서 쉬는 관광.

고창군이 지역 대표기업과 손잡고 대한민국 농촌관광의 새로운 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년 산업관광육성 공모사업'에 '짓다·놀다·먹다·쉬다 6차산업 관광프로젝트'가 선정됐다.

고창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액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사업장이 2개이상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한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고창군은 신고·납부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각 법

인에게 안내문을 사전발송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고 특히 편리한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신고를 적극 활용해 해당 법인들이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정읍시농기센터, 오디 균핵병 조기 방제 철저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오디 개업시기가 1주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균핵병 예방을 위한 조기 방제작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은 오디 재배면적 101ha에 525톤 생산(2018년 기준)으로 전국(1,011ha, 5,208톤) 1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청정 오디 주산지로 알려져 있다.

깨끗하고 품질 좋은 오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기별 전정 작업, 양분 관리 등도 중요하지만 적기 방제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센터는 불철 오디 개화기를 맞아 생산량과 품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균핵병을 사전에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오디 균핵병은 곰팡이병의 일종으로 꽃이 필 때 감염돼 수확기 무렵 열매가 희고 딱딱해져 전혀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디 재배면적의 20~30% 정도로 추정되고 병에 걸리면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농가는 적절한 재배관리와 방제작업을 통해 병원균 밀도와 발생률을 감소시켜 주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